

전남광주 커피시장 포화 경고등…인구 감소에도 창업 행렬

3년새 236곳↑ 6760곳…전남 관광지 등 집중

저가 커피부터 개인카페까지 상권 경쟁 치열

한정된 소비자에 인건비 부담 커 수익성 악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커피음료점이 최근 3년 사이 200곳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보편화되면서 카페가 생활권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지만, 한정된 소비자를 두고 매장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부터 대형 브랜드, 개인 카페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른바 ‘상업과 밀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커피음료점은 올해 8월 기준 6760곳으로 집계됐다. 통합 전 기준으로 2023년 8월 광주 2750곳, 전남 3774곳 등 6524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36곳(3.6%) 늘었다.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커피 매장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커피음료점은 특별한 기술이나 대규모 시설 없이도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진입이 이어지는 업종으로 꼽힌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8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순천시가 672곳으로 가장 많았다. 여수시 611곳, 광산구 653곳, 북구 750곳, 서구 562곳 등 주요 도시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많은 커피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지역별 증감은 엇갈렸다. 광주의 경우 올해 8월 2745곳으로 2023년 8월 2750곳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전남 지역은 3774곳에서 4015곳으로 늘었다. 목포·여수·순천 등 주요 도시뿐 아니라 관광지와 농촌 지역에서도 카페가 새로운 소비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장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매장이 늘어난 만큼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커피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장 간 경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국내 커피전문점은 10만6452곳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영업비용은 매출보다 빠르게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낮아졌다.

특히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저가 브랜드의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메가MGC 커피·컴포즈커피·빠다방 등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매장 수를 빠르게 늘리는 한편, 스타벅스 등 대형 브

랜드는 브랜드와 매장 경험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개인 카페가 저가와 프리미엄 사이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실제 커피전문점 창업이 늘면서 폐업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커피전문점 폐점은 2만9101곳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신규 개점률이 16.5%로 폐점률 9.3%를 웃돌았지만,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매장만큼 경쟁에서 밀려나는 매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통계청 커피전문점의 3년 생존율도 50%대에 그친다.

전남광주 지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매장 수가 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업주들에게는 주변에 비슷한 매장이 몇 곳씩 들어서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도심에서는 한정된 유통인구를 여러 매장이 나눠 가져가는 상업과밀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커피 가격 경쟁도 변수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프랜차이즈 매장이 빠르게 늘면서 개인 카페가 가격만으로 경쟁하기는 어려워졌다. 반대로 개인 카페는 공간이나 메뉴, 지역 특색 등을 앞세워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두와 식재료 가격,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도 자영업자의 고민이다. 최근 조사에서도 비알코올 음료점의 식재료비와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고, 프랜차이즈 점포는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주영씨(37)는 “카페를 찾는 손님도 크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주변 매장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비슷한 매장이 많아지다 보니 예전보다 운영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피 가격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워 메뉴나 공간 등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글로벌 게임 개발자 한자라…GGDC 22일 개막

‘K-GAME, 연결에서 확장으로’ 주제…국내외 전문가 참여

국내외 게임 개발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광주에 모여 게임산업의 최신 흐름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에서 ‘2026 글로벌게임개발자컨퍼런스(GGDC)’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K-GAME, 연결에서 확장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외 게임 개발자와 기업 관계자, 게임 배급사, 투자자 등이 참석해 게임산업의 변화와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22일 오전 10시30분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개막 기조연설은 초대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과 플레이스테이션3 개발에 참여한 도쿄공과

대학교의 테이지 유타카(Teiji Yutaka) 교수가 맡는다.

문텐 게임즈의 앤디 로(Andy Roh) 대표도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락스타 게임즈에서 ‘GTA 5’와 ‘레드 데드 리뎀션’ 등 대규모 게임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의 장르 다변화와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소개한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스마일게이트와 컴

투스플랫폼, 유니티 테크놀로지 코리아, 카카오게임즈, 창조공작소 등이 참여해 게임 개발과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산업 주요 현안을 다룬다.

강연 외에도 게임 전시·시연과 참여형 행사, 업계 관계자 교류 프로그램, 일대일 사업 상담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과 사업 연계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



호남지방데이터청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천동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에서 ‘2026년 데이터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데이터로 현안 해법 찾는다” 호남데이터청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청년 인구이동 유형별 소득변화 분석’
광주전남 출산·소아의로 접근성 분석도 우수상 수상

호남지방데이터청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호남지방데이터청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천동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에서 ‘2026년 데이터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직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통계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 내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최우수상은 ‘청년 인구이동 유형별 소득변화 분석’이 차지했다. 이 과제는 청년 유출을 단순한 전입·전출 규모로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들의 이동 경로를 추

적하고, 청년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해 이동 유형별 소득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상황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해 비교집단 간 출발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는 등 고급 통계기법을 실제 지역 현안 분석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광주전남 출산·소아의로 접근성 분석’이 선정됐다. 의료기관 수나 시·군·구별 평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료 수요와 자원, 실제 도로망을 기반으로 한 접근시간을 함께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에는 인구동향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정보서비스, 도로망 기반 예상 자동차 이동시간을 산출하는 OSM 등이 활용됐다. 함께출산율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분만실, 응급·야간진료 등 9개 지표를 구축한 뒤 K-means 군집분석과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입지 분석,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역 예측, 통합돌봄 서비스 접근성 분석, 지역관광 취약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가 발굴됐다.

호남지방데이터청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나온 우수 분석사례를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업무와 연계하고, 호남·제주권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구현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통계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청년 유출, 의료 접근성 등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역의 목소리에 데이터를 더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데이터 분석과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